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은 11월 4일부터 3일간 대전 원자력발전기술원에서 제7차 국제방사선안전관리심포지엄(ISRSM:International Symposium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미국 에너지성(DOE) 사바나리버 국립연구소(SRNL) 부소장인 존 마라 박사, 일본 교토대학 연구용원자로연구소 정교수이며 원전연료주기 전문가인 하지무 야마다 박사 등을 비롯해 12개국의 해외 원자력전문가와 정부, 학계, 산업계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사용후연료 관리와 방사선안전 분야의 전문가 200여명이 참가해 80여건의 논문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ISRSM은 지난 1997년부터 격년으로 한수원 원자력발전기술원 및 방사성폐기물 학회가 공동주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국제 공식행사로서 「원전의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 기술, 사용후연료 관리」 등의 의제가 다뤄진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기술세션과 별도로 2개의 패널세션을 개설해 분야별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방사선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중부발전은 11월 6일 한국표준협회로부터『품질경영시스템 Level 6.5등급』 인증을 취득했다. 지난 해 공기업 최초로 품질경영시스템 Level 평가를 시행하여 8등급 중에서 5.5등급 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품질비용 관리 목표부여 등 적극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하여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향상된 등급을 받았다.

품질경영시스템 Level 평가는 회사의 운영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과 지속가능 경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이번 평가를 통하여 한국중부발전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발전, 품질경영시스템 Level 6.5등급 인증 취득

서부발전,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탄력 불어



•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통과

한국서부발전(사장 손동희)의 산하 가로림조력발전(사장 서현교)은 서산시와 태안군 가로림만 일대에 건설을 추진중인 가로림조력발전소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국토해양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가로림조력발전의 발전소 건립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이후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3년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1월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열어 가로림조력발전(주)가 신청한 서산시 일대 34만3170m²의 에너지시설용지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승인했다. 가로림만은 조수간만의 차(7~9m)가 커 국내 최고의 조력발전소 입지로 꼽히고 있으며, 가로림조력발전은 서산시 대산면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의 가로림만을 막아 2km의 방조제를 축조한 뒤 52㎿ 규모의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현대重, 남아공서 초고압 변압기 수주



• 3천억 원 상당… 발전소에 10년간 장기 공급 계약 • 대우인터내셔널과 공동 영업 결실

현대중공업이 전기전자 분야에서 2억 5천만 달러(약 2천900억 원) 상당의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지난 11월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전력청(Eskom)과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대용량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11개 발전소에 대용량 변압기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장기 공급하는 것으로, 현대중공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대우인터내셔널의 해외 네트워크가 합쳐져 수주 결실을 맺었다.

특히 업계에서는 유럽 및 일본 업체의 선점으로 국내 업체의 진출이 어려웠던 남아공에서 유럽 및 일본의 우수 경쟁 업체들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다는 점에 보다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 전력청의 기술 표준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중동, 아프리카 지역 신규 변압기 사업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EA